

청년, 인문 소양 기르며 자신을 돌아본다

해남 대흥사 일지암, '청년출가 암자수행' 열려

초의 선사가 당대 지식인인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등과 교류했던 한 암자에서 20대 청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해남 대흥사 일지암(주지 법인)은 2014년 1월 5일부터 2월 3일까지 30일 동안 '청년출가, 암자수행 30일'을 개최한다.

30일간의 암자수행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총 5명으로 스님들의 삶을 그대로 따를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체험한다.

먼저 참가자들은 백장산사의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一日不食)의 청규정신에 따른 수행에 매진한다. 새벽 5시에 기상해 예불을 올리며 예불 이후 2시간 동안 불교경전과 인문학 서적을 강독한다. 아침공양과 점심공양은 참가자들이 운력으로 돌아가며 준비한다. 계율에 나온대로 오후 불식이 시행된다.

특히 3일에 한 번씩은 산에서 직접 땀감을 장만해 난방을 해결하며 마을 농사일도 도와야 한다. 저녁 예불 이후에는 참가자들

2014년 1월 5일~2월 3일까지

운력·참선·인문학 강독 등 다양

12월 28일까지 자소서 접수 마감

이 모두 모여 차담과 인문학 서적 낭독, 참선 및 수행일기를 작성한다. 바닷가와 인근 섬으로 포행가는 일정도 포함된다.

이번 30일간의 암자수행을 기획한 일지암 주지 법인 스님은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당시 청년출가학교 교장으로 지내며 청년들에게 단기출가 생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보고 느끼며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

법인 스님은 "청년출가학교 당시 그들이 서로 대화하며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평갈마를 암자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30일 암자수행은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각자가 주체자로서 서로에게는 조력자가 돼 자기 삶을 경



2012년 가을 진행된 일지암 템플스테이의 모습. 참가자들은 운력·참선·예불 등 스님들의 수행과 인문학서적 강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영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느끼는 자리"라며 "그들과 가슴으로 대화하고 서로의 바람을 이뤄가는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출가 암자수행은 12월 28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사진을 첨부한 자기소개

서와 김수영의 시 <어느 날 고궁이 나오면 서>를 읽고 쓴 에세이 1편을 이메일(kasup@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모임 참가자는 12월 31일 발표한다. 지도법사 가섭 스님 (010)9004-0408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광주지역 5대 종교인 시국선언 발표

광주지역 5대 종교인들이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천도교, 원불교 성직자 100여 명은 12월 5일 광주YMCA 무진관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촉구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사진)

이날 5대 종교인들은 "지난 18대 대선은 불법적으로 치러진 부정선거"라며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명백한 헌정유린이며 민주주의 파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당연한 일임에도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조작하고 있으며,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촛불을 든 수많은 애국국민들의 열정과 실천을 '중복'으로 몰아세우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 부정 불법 그리고 공동체의 갈등의 근원은 남북분단"이라고 진단하고 "참된 종교는 정권에 대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현직 스님(원효사주지), 김용성 목사(광주NCC 총무), 이영선 신부(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



장), 이우원 선도사(천도교)이 나섰다. 불교계에서는 현직 스님을 포함해 15명의 스님이 동참했다.

스님 스님은 시국발표를 통해 "북한에 대해 족벌체제, 세습체제 등 온갖 비난을 하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남달 할 때 아니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날 종교인들은 촛불대회에 적극 참여하며 시국미사, 시국법회, 시국기도회 등을 진행할 것으로 결의했다. 천도교는 이날 시국선언 이후 20일간 새벽 5시부터 시국을 위한 기도회를 전교인이 펼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착한벗들, 다문화 가정 겨울나기 지원



착한벗들 회원 스님들과 겨울나기 용품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있다.

추운 겨울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자비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 지역의 시군단위로 4대종단 지도자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 김치 나누기를 진행한데 이어 난방연료와 쌀, 식품품 지원에 나섰다.

사단법인 착한벗들(이사장 회일, 참총은우리절 주지)은 11월 30일 전주와 완주 지역 내 회원이 어려운 이웃과 다문화가족 12가구에 난방용 등유와 연탄, 식품품 등을 전달했다.

매년 참총은우리절 불교대학이 주관하던 '자비의 연탄' 전달 행사를 '사단법인 착한벗'들로 이관하면서 다문화 가정도 수혜가구에 추가해 예년에 비해 7가구가 늘어난 12가정으로 확대했다.

회일 스님은 "매년 이맘때면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손길을 펼치고 있지만 전북지역의 경우 불자 중심의 사회단체가 드물어 그간 타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이 적었다"며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자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착한벗들은 12월 29일 아동, 청소년 총 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3일~5일까지 참총은우리절에서 열리는 '가자! 어린이겨울캠프'에 지역내 다문화가정 및 불우가정 자녀 20여명의 참가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주불교계, 김장나누기 봉사 '훈훈'



원불문화복지회 봉사단원들이 직접담근 김치를 들고 활짝 웃고있다. 이날 김치는 총80가구에 전달됐다.

사단법인 원불문화복지회(이사장 원봉)는 11월 28일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에 김장담근기봉사를 실시했다.

김장담근기봉사는 태고종 청주 보현사(주지 혜성) 신도회, 조계종 범부사 봉사단, 진전 자재암 자비원 봉사단, 상당구, 흥덕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 총 10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담근 김장은 한 가정에 1박스(10kg)씩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정 등 총 80가구(상당구 40가구, 흥덕구 40가구)에 전달됐다.

이번 김장에 이용된 배추와 양념은 스님들이 직접 재배한 유기농 농산물을 이용하였고, 스님들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달하면서 연말연시 각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사)원불문화복지회는 한국불교 태고종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한 보현사 회주 원봉 스님이 설립해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하여 장학사업, 물품 지원 등의 경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주 용화사(주지 각연)도 11월 25일부터 이틀간 용화사 신도 30명, 새터민 20명과 함께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새터민들은 자원봉사에 참여해 일손을 나누며 '복한식 김장김치'도 선보였다.

용화사는 "추운 겨울 새터민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완주 송광사, 비행우려 청소년 템플스테이

전북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11월 29일 비행 우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비체(나누고 배우고 채우고)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전주 덕진경찰서의 자체 선도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송광사 5차 나비체 템플스테이에는 중학생 11명이 참가해 심신치유를 위한 명상과 108 참회, 발우공양, 스님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들 청소년들은 자연친화적인 생활방식인 불교의 템플스테이를 통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 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에 동참한 백모 군(중2)은 "스님과의 대화시간 중 '마음을 쫓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다"며 "다른 친구들에게도 템플스테이를 꼭 추천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덕진경찰서 관계자는 "비행우려 청소년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평소 학교와 학원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길러 다른 친구들에게도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원각사 수계법회... 12월 5일 봉행

오래 실천을 위한 수계식이 봉행돼 화제가 되고 있다. 광주 원각사(주지 도요)는 12월 5일 대웅전에서 200여명의 수계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5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오른쪽 사진>

이날 수계식에는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이 계사로 나서 마정수계를 진행했다.

도일 스님은 법문을 통해 "선업을 쌓는 가장 현명한 길은 5계를 수지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스님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계율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생긴 일로, 5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수승한 공덕을 갖는 덕목으로 잘 수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일 스님은 이어 불자들의 5계의 적극적 실천을 방생, 진실된 말, 깨끗한 생활 등을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예년 내던졌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

닐자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여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장은 멀고 공덕이 높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p>1 염주세트(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밴드1개, 이부사계</p> 	<p>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p> 	<p>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 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p> 	<p>4 수직으로 나열된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p> 
<p>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한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p> 	<p>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주로 통과시킵니다.</p> 		
<p>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밴드틀을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p> 	<p>8 이때 밴드틀과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p> 	<p>9 두 줄로 2회 뒤로 가법게 매듭을 만듭니다.</p> 	<p>10 다시 매듭을 3번 한껏 조이면 됩니다.</p> 
<p>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리미터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늘려줍니다.</p> 	<p>12 108염주 완성 심원산인특허출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p>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 하시면 자세한 상담에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안마돌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